

# 시선

## 사설

### 법인은 구성원 안에 응답하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학교는 여태 없었던 갖은 변곡점을 겪을 예정이다. 23일, 현 조인원 총장이 12년만의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19일부터 이를 간 구성원 대표단체들이 한데 모여 구성된 ‘총장선출 범경희대 책임위원회(범대위)’와 법인이 차기 총장 선출제 개정안을 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21일 있을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제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해진 순순대로 총장 권한대행도 선임된다.

수면 위로 부상한지 반년, 총장 선출제 개정 논의는 소음을 내면서도 조금씩 움직여왔다. 신입 총장 없이 현 총장 임기 종료라는, 여태 없었던 일선을 넘어서는 사태가 현실화됐지만 범대위가 마련한 새로운 개정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인 이사회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총동문회, 총민주동문회, 교수의회, 노동조합, 통합노동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양 캠퍼스 총학생회, 서울캠퍼스 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국제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학내 10개 구성원 대표 단체가 개정안 단일화 합의에 성공했다. 학내 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총장 선출제안을 구성원 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 그간 법인과 대학이 문제를 제기했던 구성원 단체 간 의견 수렴이 합의안의 형태로 완료된 것이다.

그저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고하기만 해 보였던 기록권을 다소 내려놓고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는 양보도 보였다. 교수 단체의 의견 비율은 낮아졌고 직원노조는 통합노조와 경희의료원노조에게 지분을 양보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구성원과 법인의 의견권을 동등로 설정하고 최종 선임권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인에 남기며 법인의 권한도 존중했다.

무엇보다 구성원 참여를 통한 총장 선출이라는 대학의 민주화는 시대적 요구임을 직시해야 한다. 성신여대, 이화여대, 상지대 등이 직선제를 도입했고 동국대 총학생회 회장은 고공농성을 벌이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가에 부는 새로운 민주화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다.

총장은 경희대에 몸담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 약 3만 명의 구성원과 30만 명 동문을 대표한다. 사학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여지껏 구성원 대표 선출에 구성원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이 의문스럽게 여겨질 정도다.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이 참여하고 중요한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렇게 선출된 총장이라면 보다 더 구성원을 위한 정책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학원의 민주화’를 첫 번째 가치로 내건 우리 대학이 그간 보였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구성원에 대한 불신을 낳아 보이는데 자태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을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 대표 단체들이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였으니 이제는 법인 이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총장 선출제 논의 재개를 결정한 법인 이사회의 용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 개정안 도출로 이어질 길 바란다. 여전히 선출안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법인이다. 그만큼 다시 마련된 논의 테이블에 앉을 법인 이사회 관계자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거의 다 왔다. 경희학원 역사 70년 만에 학원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역사를 그 스스로의 손으로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 대학은 지금

### 배척으로 얼룩진 학생 사회

안나연 기자 na@khu.ac.kr

알몸으로 건물에 출입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한 ‘알몸남’ 사건 이후 동덕여대는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음식 배달원도 안돼” “식당이 무슨 죄” 동덕여대 외부인 출입금지 첫날/조선일보, 2018.10.29.) 지난달 29일 이후 동덕여대에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에 용무를 말한 뒤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동덕여대 재학생은 정문과 후문을 제외한 출입문이 봉쇄된 것에 불편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근 거주 중인 주민과 배달에 주력하는 식당 일부는 불편을 역력히 토로했다.

중앙대에선 실습생과 일부 유학생을 유권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실



### 이 주의 주제 - 길고양이와 공존

## 길고양이와 우리의 삶



양여진 기자 clcl@khu.ac.kr

‘랜선집사’.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즐겨보는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다. 최근 랜선집사와 같은 ‘뷰니멀족’이 증가하며 강아지, 고양이만을 촬영한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양이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나만 고양이 없어”라는 동일한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과거에 고양이를 요물이라고 여기던 때와 비교해 보면 세상이 많이 변화한 것을 느낀다.

나아가 우리 주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들은 캣맘, 캣대다라 불린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됐고, 대학마다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도 증가하고 있다. 4개월 전 서울캠퍼스에서도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 쿼츠(KHU-CAT)이 사람과 길고양이 간의 공생을 위해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이면에는 유기동물 문제가 있다. 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방사된 길고양이를 제외하고 10만 256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8만 7,783마리와 비교해 14.2%인 1만 2,473마리가 증가한 수치다.

심지어 길고양이 학대는 끊이지 않는다. 대학교

길목에 고양이 목을 절단한 토막사건, 길고양이에게 불을 붙이거나 안구를 적출하고, 다리를 골절시키는 등 잔인한 학대가 넘쳐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보호단체와 캣맘, 캣대다, 길고양이 동아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서고 있다. 우리학교 쿼츠(KHU-CAT)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인간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한다. 서울캠퍼스 4곳에 배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에 정기적으로 사료를 공급한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TNR을 시행하고 있다. TNR은 trap-neuter-return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대학의 3대 역할은 교육, 연구, 사회공헌이다. 쿼츠(KHU-CAT)의 활동은 소소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길고양이는 소음, 배설물을 발생시키고 쓰레기봉투를 찢는다. 이는 그들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학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에게서 버려진 고양이들이 길고양이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주택가 주변에서 맴돌며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는 것. 이 도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도 삶의 터전이다. 길고양이가 사회일원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습생 및 유학생, 기본유권자에서 제외/중대신문, 2018.11.12.) 선거 공고 및 회의록, 학내언론이 한국어로 쓰여 있는 한 유학생은 선거 정보 수집 및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배경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일부 의료·보건 단과대학 학생의 외부 실습 기간이 투표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투표를 변동을 줄이기 위해 기본 유권자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선 선거권 침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한국음악과가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시간까지 착취하고 교수의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드러났다. (한국음악과 교수 권력 남용 문제 감사 착수/이대학보, 2018.11.12.) 전공필수 수업 ‘관현악’, ‘한국음악 전공실기’에선 1학년이 해당 과목 수업 전후로 도우미를 해야 했다. 교수진이 성차별적 발언 및 왼손잡이 차별 등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6만 원의 음악캠프 참가비는 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강제됐다.

고려대 정경대에서 주관한 인권주간 프로그램에서 ‘한남’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논란이 불거졌다. (정경대 인권주간 ‘한남’ 논란/고대신문, 2018.11.12.) 정

경대 학생회는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부스에 마련된 일기장에 청소년 시절 겪은 인권침해사례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장에서 사용된 일기장은 이후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됐다. 그 과정에서 ‘한남’, ‘한남몽땅이’란 표현이 여과없이 게시되며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학생 대표기구의 공식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성 대결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선 지난 2013년 지정된 흡연구역 때문에 현재까지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RICA캠 흡연 구역 지정 5년... 눈치 보는 흡연자, 불편한 비흡연자/한대신문, 2018.11.11.) 캠퍼스 내 흡연구역은 25곳이나, 위치가 학생 통행이 빈번한 길목인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비흡연자 측에선 혐연권을 주장하며 흡연구역의 위치가 인적 드문 곳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흡연자 측은 정당한 곳에서 흡연을 함에도 비흡연자의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학교 측은 내년 초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흡연 구역을 정비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 열매는 나무의 것이다

### 세시봉

안나연 (서울뉴스팀장)



우리 사회는 ‘헬렌 켈러와 설리남 선생님’이나 ‘맹모삼천지교’ 일화를 언급하며 교육자와 학부모가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다. 개인의 자질을 끌어냄에 있어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돕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꽃과 열매를 피워내는 것은 나무이고 결실은 나무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은메달을 석취한 ‘탐킴(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 최근 폭로한 감독 및 지도자의 실태는 경악스러웠다. 방과 후 활동을 기반으로 한 선수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김은정 선수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김초희 선수를 대신해 김민정 감독이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선수들은 감독진의 사적 행사에 동원돼야 했다. 감독 개인의 영달을 위해 팀을 사유화 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비유가 열매를 탐내 자신의 것이라 말한 것과 같다.

실력 양성에 교육자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다. 교육은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토양이다. 그러나 교육자의 역할은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돕는데서 그쳐야 한다. 치열히 일궈낸 성취에 따른 결실인 상금을 갈취하거나 일방적으로 팀에 합류할 자격은 없다. 김민정 감독은 감히 열매를 탐해, 중국엔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교육자의 자기만족을 위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드문 일은 아니다. 지난 목요일엔 2019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다. 취지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나, 우리사회의 요구 탓에 압박이 짙다. 그 무게에 짓눌려 삶을 포기한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당장 작년에는 성적이 오르지 않자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 바다에 뛰어들어 사레가 있었으며 재작년엔 ‘의대를 가야한다’는 부담에 4수까지 하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수험생도 있었다. 수능이 끝난 해방감 끝에 이어지는 “오늘 한강물 따뜻하냐”는 비탄한 자조는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아찔하다. 개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는 배경에는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액세서리로 사용하기 위해 명문대나 특정 학과를 중용하는 학부모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분명한 인격체인 자녀를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기도 한다. 그 때문에 자녀가 일궈낸 노력의 성취를 자신을 빛내기 위한 보석으로 취급한다. 폭언을 일삼고 상금을 빼돌린 감독진과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를 등치시키는 시도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단순히 성공을 기원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신을 뽐내려 한다면 그 본질은 김 감독의 만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열매는 나무가 가진 제 나름대로의 빛과 향을 담아낸 결과다. 누군가의 액세서리가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 늘 지켜보는 제자가 노력과 인내 끝에 결과를 일궈내는 것이 기특한 마음은 안다. 다만 열매는 어디까지나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에 맺은 것이다. 그것을 비료의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 열매는 제 맛과 향을 잃을 것이다.

## 알림

###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최명규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재단(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0-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동) / Tel 02-961-0030-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21